

제시문 가,나와 다는 모두 죽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모두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제시문 가는 죽음을 동종은 모두 보편적인 한 가지 방향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다.인간은 모두 죽음을 직면하며 매장 등의 행위를 통해 사자를 애도한다.인간에게 죽음은 끝의 의미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대응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가 된다.또한 제시문 가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한다.죽음을 기피하는 동물들과는 달리 죽음을 직면하고 실천을 통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표현하는 인간의 행위는 동물의 생존 본능과의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제시문 가의 주장이다.반면,제시문 나는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와 그 행위의 사유가 개별적이라고 서술한다.죽음이 보편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혈연 관계에 놓여 있는 동물들은 죽은 동물에 애착을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도리어 이를 권위의 과시로 활용하기도 한다.단순한 인식의 차이를 넘어서 폭력과 연민이 공존하는 예시를 통해 각자의 처지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제시문 나는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와 마찬가지로 동종에게 죽음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한다.죽음을 통한 인간의 존재유지를 설명하는 제시문 가와 달리 제시문 다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 연상을 할 때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죽음을 삶을 결단짓는 종단의 행위라고 인식한다.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죽음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문 다는 인간과 동물을 제시문 가와 같이 구별짓지 않는다.인간 또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애착과 함께 생존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마찬가지로 부응하는 존재일 뿐이며 그들은 차별화된 행위나 사고를 보이지도 않는다.